

제60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8월 1일)

조선시대의 종이 만드는 사람들

박미선 | 119호 조선3실 | 18:00~18:30

우리는 하루 동안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사용합니다. 식사를 하고 내는 지폐, 영수증으로 받는 감열지, 택배를 보낼 때 사용하는 종이상자, 보고서를 인쇄하는 인쇄용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에 맞춰 생산된 종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종이들은 각각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원하는 특성을 구현한 것입니다.

조선실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던 종이를 만들어낸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종이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종이를 만드는 곳은 공장이지만, 조선시대 종이를 만드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사용하는 종이를 만드는 관아인 조지소造紙所는 지금의 종로구 신영동에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지방에서 생산한 종이를 지폐를 만들었는데, 각 지방에서 만든 종이의 두께 차이가 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창의문彰義門 밖에 조지소를 설치했고 이후에는 외교문서에 사용되는 종이를 주로 생산했습니다. 조지소는 이후 1446년(세조 12)에 조지서造紙署로 이름을 바꾼 후, 1882년(고종 19)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후에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협약 문서, 정부에서 만든 지도 등은 관에서 양지를 수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선에 기계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과 시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종이를 만들던 시대에서 기계로 종이를 만드는 시대로의 변화가 조선에 나타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계식으로 만들어진 종이에 인쇄한 신문을 읽는 시대로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림1. 독립신문, 1899년 10월 2일자

일본 에도시대 수출용 도자기: 가키에몬

정미연 | 311호 일본실 | 19:00~19:30

일본 규슈[九州] 아리타[有田]지역의 태토와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朝鮮 도공들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 경덕진景德鎮도자의 기형과 문양을 본 따 만든 일본 이마리 도자기의 수출은 17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아리타 지역에 만들어진 여러 가마[窯]들에서 제작된 도자기들은 요지 근처의 이마리항伊万里港에서 배에 실려 각지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 도자기들을 이마리 도자라고 부른다.

이마리 도자가 수출용 도자로서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1659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도자기를 대량으로 주문한 것이었다. 이 시기는 그때까지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활발하게 도자기를 수출했던 중국이 명명·청淸 왕조 교체기의 혼란과 그에 따른 해금령海禁令으로 도자기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시기였다. 이마리 도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 도자기의 대체품으로서 유럽에 진출해 1684년 청조淸朝가 무역금지를 해제하는 전해령全海令을 내려 도자의 수출을 다시 개시한 이후까지 활발히 수출되었다. 수출은 에도막부가 무역을 허락한 나가사키[長崎]에서 중국과 네덜란드 선박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매년 수만 점에 달했다.

1670~1690년에 이마리 도자의 유럽 수출은 절정에 달했다. 유백색 소지에 화려한 색깔로 정교하게 그림을 그린 ‘가키에몬 양식[柿右衛門様式]’으로 불린 이로에[色繪] 자기가 제작되어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을 매료시켰다. 독일의 마이센(Meissen), 프랑스의 세브르(Sevres), 영국의 첼시의 요지에서는 가키에몬 양식 이마리 도자의 모방품을 만들기도 했다.



그림1. 이로에 호랑이매화무늬 접시[色繪虎梅文皿], 에도시대 17세기, 지름 24.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2. 이로에 동식물무늬 합[色繪動植物文盒], 에도시대 17세기 말, 높이 34.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라무덤에서 나온 고구려 청동그릇

-광개토대왕명호우-

최장열 | 105호 고구려실 | 19:00~19:30

1946년 5월 국립박물관은 우리 손으로 첫 발굴조사를 시작하였다. 대상은 경주 시내의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인 노서동 140호분이었다.

발굴 당시 봉분은 이미 결실되어 지표로부터 2m 내외로 남아 있었는데, 상부는 삭평되어 2체의 민가가 들어선 상태였다. 다행히 목곽木槨을 포함한 매장주체부는 전혀 교란되지 않았다. 발굴 결과 두 개의 봉분이 남북으로 잇대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쪽의 무덤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명이 새겨진 호우壺杆가 출토되어 “호우총”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고, 북쪽의 무덤에서 은방울이 출토되어 “은령총銀鈴塚”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청동호우는 피장자의 머리 오른쪽편에서 뚜껑이 덮인 채 바르게 놓여져 있었다. 신라의 전형적인 돌무지덧널무덤에서 금속용기류는 피장자의 머리쪽에 설치된 부장칸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호우총에서는 피장자가 안치된 목관木棺의 내부에서 발견되어 이채롭다.



그림1. 광개토대왕명호우와 바닥 명문

호우는 반구형의 몸체에 납작한 모양을 한 편반구형의 뚜껑으로 이루어졌다. 몸체는 높이 10.3cm, 입지름 22.9cm, 바닥지름 15cm, 몸체 최대 지름 23.8cm이고, 뚜껑은 높이 9.1cm, 입지름 22.8cm, 꼭지 높이 3cm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합솥 모양의 청동용기 가운데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굽이 있는 바닥에는 4자 4행으로 이루어진 16자의 명문[乙卯年國置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과 상부 중앙에 “#”이 돌출새김 되어 있다. 서체는 광개토대왕릉비와 매우 흡사하다.

“國置土廣開土地好太王”이란 광개토대왕 사후死後의 호칭[諡號]이며, 을묘년은 일반적으로 광개토대왕릉을 만든 다음 해인 415년으로 보고 있다. 명문 말미의 “十”과 상부 중앙의 “#”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대체로 “을묘년에 국강상 광개토지호태왕(을 기념하기 위한/ 위한) 호우” 정도로 풀이될 수 있겠다. 광개토대왕을 장사 지낸 1년 뒤 왕릉에서 성대한 제사를 올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이 어떻게 신라 무덤에 묻히게 된걸까?

호우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415년은 신라 18대 실성왕 14년으로, 왕 자신도 내물왕 37년(392)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내물왕 46년(401)에 신라로 돌아와 다음해 왕위에 올랐고, 실성왕 11년(412)에는 내물왕 아들 복호가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눌지왕 2년(418)에 돌아왔다. 이와 같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로 볼 때 고구려의 영주인 광개토대왕을 기념하는 물건이 신라에 보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다만, 호우총에서 출토된 여타 유물들은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이 소멸되기 직전 쯤인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청동호우는 5세기 초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이후 제작시기와 가까운 시점에 경주로 반입되어졌고, 100여년의 전세 傳世 기간을 거쳐 무덤에 묻히게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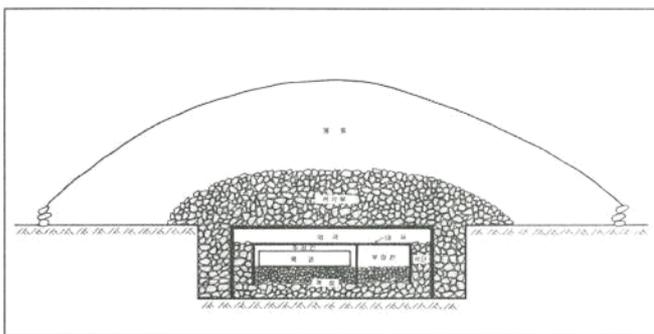


그림2. 호우총의 동서단면 복원 모식도



그림3. 호우총 유물 출토 위치

“유물에 담긴 직업 이야기”

원금옥 | 117 조선실, 118~119호 조선실 | 19:00~19:30

◆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림1. 국서누선도

이 그림은 조선시대 국왕의 국서國書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있는 통신사 일행을 일본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통신사는 국가 간 상호 협력할 일과 긴급한 문제해결 등을 위해 파견되는 외교 사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과의 교류가 빈번했는데 이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호간 의사소통을 위해 역관이 동행하였습니다. 역관은 외교문서를 번역하기도 하는 등 외교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림2. 백자 약연

◆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조선시대에 백자로 만들어진 이 약연은 아래 길쭉한 연의 모양이 배처럼 생겼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약선藥船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흙이 깨인 연에 주판알처럼 생긴 연알을 굴려 약재를 빻거나 즙을 낼 때 쓰는 기구였습니다. 조선시대 의원들은 진맥診脈을 하여 침이나 뜸, 한약재들을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 어디서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그림3. 마패

조선시대 관원이 공식적인 일로 지방에 출장을 가는 경우 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서원에서 발급해 주는 패를 마패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가 파손이 심해 구리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마패의 한 면에는 관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말의 수를 다르게 새겨 넣었고 다른 한 면에는 제작시기, 일련번호, 발급기관 등의 정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관리들은 역참驛站에서 이 패를 이용하여 말을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 누가 그렸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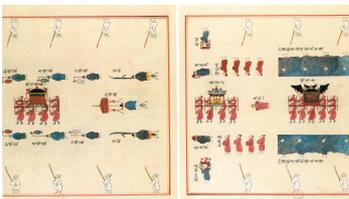


그림4. 장열왕후국장도감의궤

조선시대에는 그림을 그리던 관청이 있었고 여기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화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원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 신분인 ‘중인’으로 임금님의 초상화[어진御眞], 양반의 초상화, 지도 등을 그렸습니다. 특히 화원들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문자 기록만으로 알 수 없는 의식과 행사 등 여러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남겼는데 이것이 의궤입니다. 조선시대 화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관직은 별제別提였습니다.